

보도일시	2024. 4. 1.(금) 배포		사진	2	자료	0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생활안전팀)	과장	이기봉 (031-8021-0300)					
		팀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박주경 (031-8021-0334)					

용인소방서 구현석 소방장, 'KBS 119상' 본상 수상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 (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일 보정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구현석 소방장이 2024년 제29회 'KBS 119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BS 119상 시상식'은 KBS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인명구조 활동에 헌신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4년 올해까지 총 29회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 총 641명이 수상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KBS 119상 시상식에서 용인소방서 구현석 소방장이 ‘본상’을 수상하고 영웅 배지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구 소방장은 2012년 소방에 임용된 후 12년 동안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열정의 소방관으로 동료들에게 평가받으며, 로프를 활용한 구조활동 전문가로 일컫는다.

또한 국민을 지켜내는 활동뿐만 아니라 신입 소방관에게 화재진압 및 구조교육을 가르치는 교관으로서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KBS 119상 본상 유공에 이름을 올렸다.

안기승 서장은 “KBS 119상 본상을 수상한 구현석 소방장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6만 6천여 소방관을 대표해 구조분야 전문가로 수상한 특별한 의미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